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 감추어지신 하나님

성경: 사 45:15, 엡 3:16-17, 빌 2:13, 눅 18:1-8

I. “오, 구원자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 정녕 주님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 사 45:15.

- A.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 사 45:15.
 - 1.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다.
 - 2.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애로 가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할 수 있다 — 눅 1:49, 뵤전 5:6, 계 15:3, 엡 2:7, 시 17:7.
- B. 우리의 하나님께서 무소부재 하시고 전능하시며 용서로 가득하실지라도, 그분은 또한 에스더기가 암시하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 에 4:14.
- C.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주 안에 자신을 숨기셔서, 결국 우리는 어디에서 그분을 찾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 욥 23:3.
- D.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일을 하였고 그들의 개인 생활 안에서도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지만 자신을 감추셨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시지만 항상 감추어져 계셨다 — 사 45:15.
- E.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히 우리를 돕고 계실 때 여전히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요 14:26, 롬 8:28.
 - 1.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 그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 2. 사실상,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우리를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는 동안, 숨겨진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 — 롬 8:28, 34, 에 4:14, 빌 2:13, 엡 3:16-17장.
- F.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신다 — 빌 2:13.
 - 1. 우리의 책임은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내적 느낌에 반응함으로써 그분과 협력하는 것이다 — 롬 8:6.
 - 2.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고 활동하시는 것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것은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존재의 깊은 부분에서 은밀하고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G.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시하기를 싫어하시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드러내어 일하시기보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 마 6:1-8.
- H.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의 기질, 곧 숨으려고 하는 기질과 정반대이다 — 사 45:15.
 - 1. 하나님은 감춰지기를 좋아하시지만, 우리는 드러나기를 좋아한다 — 마 6:1.

2.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내려는 갈망이 조금도 없으시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이 없이는 만족하지 못한다 — 마 6:2.
3. 이러한 신성한 기질이 우리에게 큰 시험과 점검이 된다.

II. 에스더기는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홀어져 억압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은밀히 돌보시며 포로 되어 박해당하는 그분의 선민을 공개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제시한다 — 에 1:1-22, 2:1-23.

- A. 이 책의 핵심 중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신의 선민으로 삼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주신 이후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어, 은밀하게 행동하시면서 그들을 은밀히 돌보시고 공개적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 사 45:15.
 1. 이러한 이유로 에스더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해야 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다 — 에 4:3, 16.
 2. 한 면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셨지만, 또 다른 면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
- B.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
 1.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이방 세계에 최고의 왕을 세우셔서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다스리는 권력을 갖게 하셨다 — 에 1:1-2.
 2.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 최고의 왕이 자기 왕후를 폐위하게 하셨는데, 그것은 왕후가 왕의 말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 에 1:3-22.
 3.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은밀한 돌보심으로 부모 없는 한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를 일으키시어, 최고의 왕으로 하여금 왕후의 관을 씌우게 하셨다 — 에 2:1-18.
- C. 이스라엘이 포로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숨어 계셨으며, 여전히 숨어 계신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고 계신다 — 사 45:15.

III.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비유의 의미는 심오하며, 우리는 감추어지신 하나님으로 계시되신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 A.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과부는 믿는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현대에 그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과부이다 — 고후 11:2.
- B. 이 비유의 과부처럼(눅 18:3)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원수인 마귀 사탄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우리의 원한을 풀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1. 이 비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원수로부터 받는 고난을 보여 준다.
 2.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동안에, 우리는 원수에게서 항상 괴롭힘을 당하는 과부이다.
- C.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박해하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이 불의하게 박해당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 뱀전 2:20, 3:14, 17, 4:13-16, 19.

1. 수 세기에 걸쳐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정직하고 신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불의한 박해를 당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불의한 대우를 받고 있다 — 계 2:8-10.
 2. 우리의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입증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주 예수님은 자신의 박해받는 백성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하나님에 대한 상징으로 불의한 재판관을 사용하셨다 — 눅 18:2-6.
- D. 이 비유에서 과부는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는 그녀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렇게 원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 눅 18:1, 3.
1. 우리의 남편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이 땅에 과부로 남아 있을 때, 일시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처럼 보이신다 — 눅 18:6.
 2. 비록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보이실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분께 호소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거듭거듭 그분을 괴롭혀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낮 자기에게 부르짖는’ 그분께 선택 받은 사람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 눅 18:7-8상.
- E. 요한계시록 8장 5절에서 암시하는 것은 이것이 6장 9절부터 11절까지와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언급된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이다.
1.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경륜을 반대하는 땅을 심판하기 위한 기도일 것이다.
 2.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 곧 불을 땅에 던지시는 것은 성도들이 향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한 응답이다 — 계 8:3-5.
- F.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 보겠습니까?” — 눅 18:8하.
1. ‘믿음’으로 번역된 헬리어는 직역하면 ‘그 믿음’이다. 이것은 과부의 믿음과도 같이 끈질기게 기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믿음을 의미한다.
 2. 우리를 구원받게 한 믿음은 믿음의 시작 단계이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결 안으로 이끈 믿음은 연결하는 믿음이다. 연결하는 믿음은 우리가 계속해서 삼일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살도록 하는 믿음이다 — 롬 1:17, 갈 2:20, 요 14:19.
 3. 연결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승리에 차서 돌아오실 때 이기는 이들이 그분을 만나기 위한 신성한 요구 조건이다 — 눅 18:8하.
 - a. 연결하는 믿음은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면서 우리를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에 연결하시는 것이다 — 엡 3:8.
 - b. 연결하는 믿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이들의 믿음이다 — 고후 1:9.
 - c.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그분은 연결하는 믿음에 의해 사는 많은 이기는 이들을 찾으실 것이고, 그분께서 천 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왕국을 위해 그들을 보물들로 여기실 것이다 — 눅 18:8하, 계 20:4, 6.